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9호 [루게 제25107호] 주제 104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관하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물고기대풍을 마련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관하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서흥찬동지, 조영원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북군중장 장동운동지와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청사에 부르시어 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해주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황금해의 역사를 빛내어나가는데 앞장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관하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은 풍랑사나운 남바다와 싸우면서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관하 15호수산



이곳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안아온 귀중한 결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5호수산사업소에서 올해 성과에 토대하여 짧은 기간내에 년간물고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절에 구워됨이 없이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과학수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에서는 어장탐색과 해상지휘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항차당, 기량당 어획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군인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수 있도록 초급동 및 랭동시설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으며 하륙, 선별, 냉동, 저장작업에서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과 함께 고기배들을 애호관리하고 어구자재들을 아껴쓰기 위한 사업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어로공들에게 로동보호물자와 식량, 기초식품, 열감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서 빈틈과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우리 군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급식시키고싶은 최고사령관의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을 합쳐 많은 물고기를 잡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972년에 조직된 이곳 사업소의 발전행로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꼭 가보시겠다고 늘 외우시던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군

인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각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보내줄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로 중시하시던 나라의 수산부문을 반드시 추켜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줌으로써 수산부문의 새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한페지한페지 빛나게 써나가자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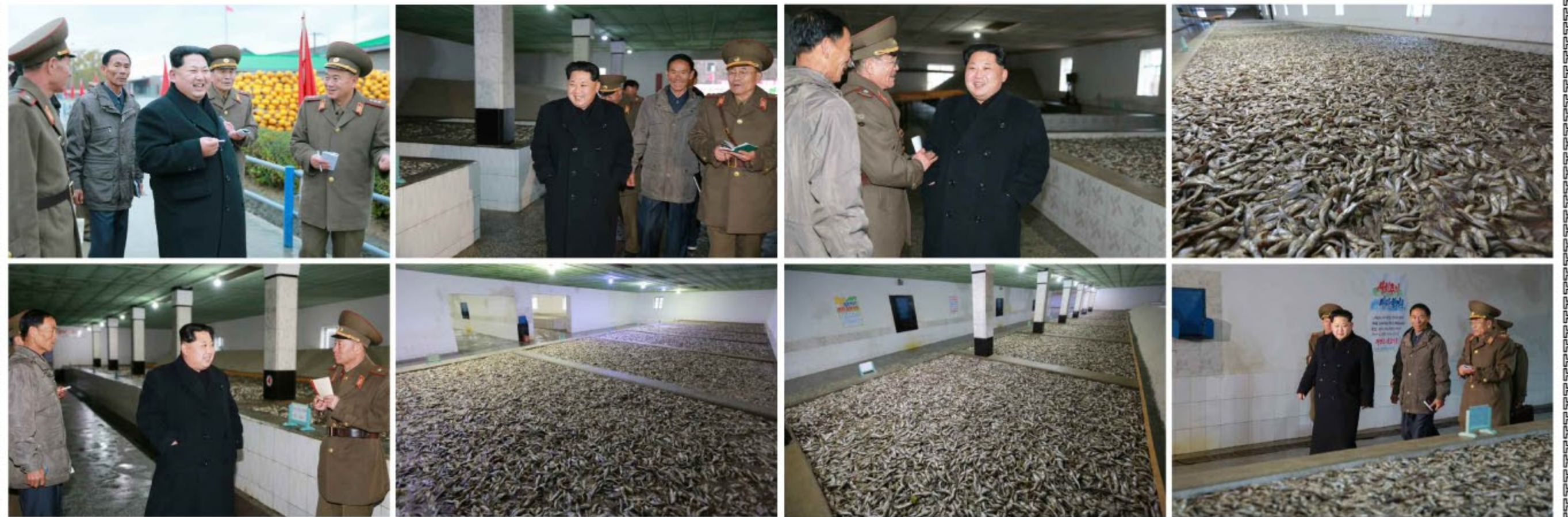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

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실래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절임랑크들과 랭동저장실들에 물고기가 그득히 쌓여있는것이 정말 볼만 하다고 하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불과 며칠사이에 수천t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대단한 성과이라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15호수산사업소에서 이룩한 물고기잡이성과는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파시하고 당의 명도적권위를 옹호보위한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549군부대 관하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사업소를 바다가의 풍치와 잘 어울리게 먼 후남에 가서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을

일신시키며 방과제와 부수도 더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15호수산사업소의 현대화사업에 당에서 직접 맡아 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15호수산사업소를 찾아온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축하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산사업소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5호수산사업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업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킴으로써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이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보람있는 걸음으로 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해지역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고기배들이 높이 울리고있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사회의 수산부문에 고무적인 힘을 안겨주고 분발시키는 원동력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인민군대당정치사업본매를 본받아 자기 단위 어로공들을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혁명의 새로운 불길을 지퍼올려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움으로써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자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 549군부대 관하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전사들이 황금해력사창조의 주인공들답게 당의 의도대로 사업소를 멋들어서 개건현대화하고 더 훌륭한 물고기잡이성공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 549군부대 관하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도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가득 차넘치게 하는데 다시금 확증해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우리 여자축구발전의 밝은 앞날을 보여준 빛나는 승리

2015년 아시아 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 이룩된 성과를 두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온 나라 천만민중의 장엄한 총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며 승리의 금메달들이 환희롭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중에는 우리의 나이던 여자 축구 선수들이 공중 높이 들어올린 승리의 금메달도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 뉘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당의 미려한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세기가 들어와 우리 조국력사는 여자축구발전의 새로운 활력이 끊임없이 펼쳐진 것이 못 할 나날들로 더욱 환희롭게 수놓아지고 있다.

사람들 누구나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며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을 더하며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의 위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새 세기를 조선여자축구열기 로 돌리던 그 나날 그들의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며 그 열에 자기들도 나날히 세워본 꿈같은 소나미였다.

바로 그들이 열매진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아시아 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한 나이던 여자 축구 선수들이다.

그들의 경력에 대하여 또 그들이 어떤 전술을 썼고 어느 선수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또 누가 멋진 득점장면을 펼쳐보였는가를 소개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새별같은 눈을 반짝이며 나이던 여자축구 선수들이 한복 소리로 합창하던 말부터 먼저 전한다.

《오늘의 승리를 우리 당 제7차 대회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듯 장한 선장의 목소리에 비친 새 세대의 여자 축구 선수들의 승고한 정신세계가 곧 우승의 비결이었음이 명명백백하다.

한편 한명의 선수들 모두가 당돌하고 여수진 애인처럼 뛰었다.

박해경, 리해연, 김봉의, 옥금수...

어떻게 축구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여러 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조국을 빛내이는 영예의 단상에 오른 전세계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처럼 금메달을 쟁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고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이 소중한 꿈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분은 우리 장군님이시겠다.

나라이에 바쁘신 속에서도 여자 축구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받들어 이룬 시점부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 온 우리 선수들이었다.

부모가 처음부터 딸이 축구를 하는것을 지지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주장 박해경 선수는 어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음악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하루는 텔레비전으로 국제경기에서 우승을 펼친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의 당찬 경기모습을 보고는 다음날 축구공과 축구화를 사주었습니다.》

정국은 애초부터 우리 여자 축구의 발전 모습이 또 한명의 축구 지지자를 만든 셈으로 되었다고 공격수 리해연 선수가 덧붙여 말했다. 이번 대회 전 기간 4월을 넘어 우리 팀이 우승을 쟁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해연 동무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여 받았다.

부모가 다 체육인이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리해연 동무는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서의 전망이 좋았다고 하여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연 경기조직자이며 중장반수인 김봉의 선수는 꼭 조국에 빛나는 훌륭한 축구명수가 되려고 당부하던 아버지의 유언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맹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하마터도 나이던 여자 축구 선수들을 우승으로 떠밀어준 제일 큰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대회참가를 위해 조국

을 떠날 날을 며칠 앞두고 당 제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된 소식이 접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제국의 벽찬 모습은 우리 감독, 선수들을 격동시켰다.

팀의 책임감독은 밤을 새워가며 우리 당령에서 기록된 뜻깊은 당대회들과 그와 더불어 온 나라를 놀라게 하고 혁신창조로 들끓인 인민들의 투쟁자료들을 하나하나 연구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선수들에게 당 제7차대회와 가지는 막대적의의에 대해 깊이 인식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체육 선수들이 어떤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싸워 어떤 성과를 이룩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나이던 여자 축구 선수들의 심정들이 새차게 끓어올랐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우리의 당령과 배정, 습기와 용맹을 총괄해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승리의 금메달을 안아올리자!

이번 필승의 기쁨은 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15년 아시아 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 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서 우리 팀은

일본팀과 맞대결이 되었다.

경기에서 책임감독은 선수들의 심리조절에 신차적인 힘을 넣었다.

선수들의 나이가 어린 특성에 기초하여 그들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우리 팀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는 선수들의 사상적각오를 더욱 분발시키는 한편 강의를 의지로 총탄이 되었으며 공격력향도 분분한 우리 팀의 우월과 함께 상대팀의 약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번 단련의 준비비에 신심드높이 경기장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요소를 잘 살리면서 높은 집단주의 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였다.

혼련의 나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제7차 전국 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주신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혼련열풍을 일으키며 다지고자 하는 맹렬한 투쟁의 열정을 발휘한 공적의 위력을 힘있게 떨쳤다.

4-4-2대형으로 밀집방어를 형성하고 불의적인 역습공격으로 상대팀의 방어진을 혼돈시켜서 드세찬 공격을 들어대던 우리 팀은 마침내 경기시간 42분에서 리해연 선수의 득점으로 귀중한 한골을 얻었다.

많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팀 선수들은 공격으로 나왔지만 우리 팀 방어수들에 의해 거듭 좌절당하였다.

문지기 옥금수 선수는 공화국의 명예가 자기의 두 어깨에 실려 있고 조국인민들이 지켜본다는 자각으로 심장을 끓이며 우리 팀 골문을 철벽으로 지키면서 단 한 알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드디어 일본팀을 1:0으로 리승하여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하고 2015년 국제 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 월드컵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의

성대에 당당히 올랐다.

그 어떤 강령에도 주저없이 맞서 한번 쓰러지면 열백번 다시 일어나 불같이 달리고 승리, 승리만을 향해 필승의 날이 들어올 때까지 우승의 금메달을 안아올린 우리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필승불패의 원동력이었다.

그렇다. 온 나라에 타인지는 총진군의 불길, 천만이 끓여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해 기세등등이 전진하는 조국의 승풍은 이렇게 우리의 나이던 여자 축구 선수들에게도 비약

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의 혁명한 병도의 손길아래 우리 여자 축구 발전의 앞날이 더욱 밝게 펼쳐지고 있음을 금치 놓아 보여주었다.

미뎀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새 세대 여자 축구 선수들이여, 더 힘차게, 더 높이 비약하라!

당이 마련해준 비약의 활무대, 애국의 활무대를 즐기며 달려달리며 백두산대군,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혁신을 끝없이 창조해나가라!

강 효 심



교육 사업 성과와 분과들의 역할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교원들의 교육자질이 언제나 첫손가락에 꼽힌다는 사실은 교원들의 자랑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어쩌때 도와 시적으로 진행된 교육사업에서 교원들이 우승을 쟁취하였으리 그것은 학생들의 높은 실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에만도 졸업생들 가운데서 수실명이나 되는 학교의 교원들과 교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고 요구성을 높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매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은 물론 교원물체적과 교수방법개선, 지어 교원조직의 단합을 도모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분과장이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과업을 물론 분과교원들의 교수수준과 실력정도에 대해서 손근보듯 알고있기 때문이었다.

학교일군들은 분과장들의 사업에 더 많은 힘을 넣었고 그들이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우선 학교의 월사업계획에 기초하여 분과별로는 자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실제로 매주 분과의 날운영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음을

말을 추켜세우자면 무엇보다도 어떤 해가 하였는가?

이를 두고 고찰하면 그는 분과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교원들의 자질향상문제 해결할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교장은 그 이유를 여러가지로 찾았다. 한두명의 학교일군으로 수실명이나 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매달과 같이 구체적으로 장악한다는것은 힘든 일이었다. 분과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고 요구성을 높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매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은 물론 교원물체적과 교수방법개선, 지어 교원조직의 단합을 도모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분과장이 해당 전공과목에 대한 과업을 물론 분과교원들의 교수수준과 실력정도에 대해서 손근보듯 알고있기 때문이었다.

학교일군들은 분과장들의 사업에 더 많은 힘을 넣었고 그들이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우선 학교의 월사업계획에 기초하여 분과별로는 자기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실속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실제로 매주 분과의 날운영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음을

가맹 시적으로 해당한 과목들에 대한 교수경연이 진행된다 하고 하면 학교에서는 경연에 참가할 분과장선발과 경연준비사업을 분과장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면 분과장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교의 명예, 분과의 명예를 빛내이겠다는 결의에 보다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학교사업에서 특색있는것은 교수경연에 있어서 우수한 교원을 내보내지 않고 신입교원들 속에서 선발하였음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교수경연이 신입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게 하여 선발되는 학교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이다. 분과장들은 이에 맞게 교수경연에 참가하는 신입교원들이 우수한 교원들을 붙여 도와주게 하고 모든 수업을 통하여 잘된 점과 부족점을 알려주면서 더욱 세련시켰다. 분과에서는 교수에서 과학적요구를 범하지 않았는가, 실례가 적용한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제기했는가 등 교수방법적 측면에서 로해하고 안시시켜주었다.

그런 다음 학교일군들과 분과장들, 실력있는 교원들이 모여 당정책화기원정형과 교육자적종모 등 교수방법적 측면에서 다듬어 경연에 나가게 하였는데 어김없이 1등을 하고 있었다.

분과장들은 분과의 날을 운영하면서 한일교원을 보여주기 수업에 출현할 교원을 미리 선정하여 그가 출현할 시간까지 여유를 가지고 이 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화평가를 정확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보여주기수업에 출현하는 교원들은 교수를 더 잘하기 위하여 교내내용뿐 아니라 참고서들과 원집과목들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과라 글 노력해나갔다. 또 분과교원들은 그들대로 지정된 교원의 지원주기수업을 보고 장발할의견을 주기 위하여 사과와 람구를 같이해나갔다.

이런 기풍이 확립되자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은 순조로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리 얼마후부터는 교수활동에서 큰 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분과의 날에 교원들이 교수활동을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논을 통하여 해결해나갔다.

교원들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합쳐 풀어나가나 교수들의 질이 올라가는것은 물론 집단안에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어떠 교수경연에서 계속 우승의 성과를 거두고있는것도 분과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올해에도 이렇게 준비시킨 20대의 교원들이 안상봉, 조명실 동무들이 시적인 교수경연에 나가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분과별사회의교원도 분과들의 역할을 높이고 교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학교일군들은 매 교원들의 교수준비상태와 교수활동정도를 구체적으로 로해하고 점수를 매겨 분과별로 종합하여 매월 총화하고있다.

이것은 분과들로서만 경영의의를 나날이 더욱 불러일으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어느 분과에서 제일 훌륭한 교원들을 내놓는가 하는 경쟁을 붙여 만든 여러개의 교원들이 전국교육실현기구 및 교원발전시회에게 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실용기구 및 교원발전시회를 수여받은것을 들수 있다.

지금 이렇 교원의 교육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교육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교장 김태하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과들의 역할을 높여 교원들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교수의 질을 개선하고 훌륭한 교육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습니다.》

본사기자 김 명 훈

최근 몇해동안 우리는 최중증상태에 빠진 주민들을 기적적으로 소생시킨 여러 보건기관의 로집단에 대한 취재과정에 똘똘안남도수혈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은 바 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이들의 소행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우리는 얼마전 평안남도수혈소를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입니다.》

몇해전 평안남도수혈소 소장으로 배치되었은 오영진 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도수혈소에서는 도인의 수많은 치료에방안위 환자들의 대한 혈액보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장은 임명된지 얼마 안되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당조직의 지도에 혈액의 여러 성분들을 분리하여 제제할 수 있는 도수혈소의 건강증진을 위한 데일이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는 공직을 한껏 느끼며 다시금 전무에 전입하였다.

하지만 그는 물려지지 않았다. 헌혈과업수행으로 바쁘지만 소장은 시간을 아껴가며 수많은 과학기술도사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였다. 그와 함께는 성분혈액제제에 쓰이게 될 설비의 가동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평안단위 일군들을 찾아다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말레 쉬임없이 긴장한 나날을 보내던 소장은 끝내 자리에 눕고말았다. 오래전에 앓던 병이 다시금 도졌던것이였다.

그날 오후 과학 원형기동부는 놀라움을 감할수 없었다. 안전치를 위해 집으로 들어간지 몇시간 안되어 소장이 다시 나왔기 때문이었다.

《어찌자고 그러니까, 그해 하루 이를 일하고는 그만들었습니까.》

《병을 들보니까 드린 그 한순간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미치게 될 후과를 생각하니 누워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또다시 먼길을 떠나는 소장의 모습은 원형기동부를 비롯한 종업원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로부터 얼마후 도수혈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창조적적외화열정을 합쳐 여러가지 성분들의 혈액을 제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어떤 지혈제를 써도 출혈이 멎지 않아 생사기초에서 헤매던 환자가 성분혈액제제를 수혈받고 소생되었을 때 이들은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데일이 중요한 초소에서 일하는 공직을 한껏 느끼며 다시금 전무에 전입하였다.

이곳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귀중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기술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한데 이어 대응혈액제제들을 생산보장하여 여러 치료에방안위 환자를 보내주었다. 그 나날 실장 김명철동무는 군인전사자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여 경애하는 현수님의 감사를 받아오는 영광을 지니었다.

깊은 감동을 지어내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니 문득 떠올랐다. 혈액이 제기되어 왔다면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림없이 보강해주고 간혹 해당한 혈액이 부족하여 안타까와하면 지체없이 자기의 몸을 건어붙이곤 한다는 도수혈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은 눈물겹게 들려주던 도인의 치료에방안위 의료일군들의 목소리였다.

흔히 사람들은 사정에서 구원된 자기를 살려준 의료일군들이 고마와 이름을 묻곤 한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순간에 혈액을 보강해주고 간혹 해당한 혈액이 부족하여 안타까와하면 지체없이 자기의 몸을 건어붙이곤 한다는 도수혈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건강과 활력에 넘쳐 웃음짓는 인민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인 교원의 참다운 공지와 보람이었다. 그들은 자국을 지닌 평안남도수혈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이 시각도 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건강증진을 위한 데일이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펼치고 힘찬 전투를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찬



작아도 큰일을 하는 보배공장

평양산진재공장에서 해마다 질 좋은 세멘트생산량을 늘여 군산림살이에 커다란 보탬을 주고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돌이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생산공정고 기계설비, 제품모양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군인의 인민생활문제를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과 인민을 위한 열사투의 정신을 안고 살며 투쟁

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이곳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원료분쇄기와 세멘트분쇄기의 미끄럼베어링토시를 새로 만드는 기술혁신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실 지난 시기 이 부속품은 유색금속으로만 만드는것으로 되어있었으므로 못쓰게 되던 다른 단위들에 가서 해결해야만 했다. 지체인 장남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결심을 안고 개조시험에 달려나갔다.

실례를 수습치려나 거들었다. 하지만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은 난관앞에 주저하지 않았다. 마침내 새로운 기술혁신이 성

공함으로써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갈수 있었다.

공장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정방공정기 제작설치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성공할수 있게 적극 떠밀어줌으로써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원료의 혼합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이룩한 경험을 살려 세멘트의 질보장을 위한 분쇄, 건조 등의 추진제를 지어낸 혼한 원료를 탐구동원하여 해결하였으리 소성로의 합리적인 총공구 위치정성을 비롯한 10여건의 기술혁신을 생산선에 받아들여 질 좋은 세멘트를 생산해내고있다.

방 인 철

영예군인과 전쟁로병, 제대군관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을 따듯히 돌봐주는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 어디서나 감동깊은 사실들이 전해지고있다.

일마전 신의주시 민로동 14 일민반에서 살고있는 제대군관 김철남동무의 안내를 통해 평안남도에서 들은 이야기도 바로 그런 감동깊은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제대군관들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걸림 단계를 제때에 없애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어느날이었다. 류혜경동무는 제대되어 신의주시에서 있는 체육기공장에 배치된 남편으로부터 빨리 이사를 갈것을 해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집이 다 꾸러졌으니 이제 월세로 데리러 간다는것이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살림집이 그처럼 빨리 마련될줄은 몰랐던것이였다.

정말 며칠후 남편이 자기 일하는 공장의 분조담당에서 리형진동무와 함께 수백리길을 달려왔다.

류혜경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살림집을 새로 마련해준것만도 더없이 고마운 일인데 새 옷과 신발까지 가지고왔으니 그

친혈육의 정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

한 제대군관의 안해가 들려준 이야기

정에 젖어있곤 하였다.

후에 안일이었지만 초급당일군들은 제대군관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해주었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업에 앞장섰다. 그들의 뒤를 관리국의 일군들도 모두가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생활필수품과 가구, 부엌예간 등이 살림방과 부엌을 채우게 되었으며 창고에는 한해 동안 댕수 있는 구명탄이 딱 차게 되었다.

책임일군들이 액정텔레비전을 들고 찾아왔고 초급당부원 김일현동무와 강기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해주었으며 김일현, 김일영, 조영순동무를 비롯한 녀성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성의를 다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군관을 위하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집대문을 때었이 마두리곤 하였다.

남편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일일이 다 품을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관리국과 공장의 일군들은 김철남동무뿐 아니라 다른 제대군관들을 위하여도 전정을 쏘아부었다.

가족을 데려올수 있는 준비정형을 알아보고 제대군관들의 살림집을 돌아보러 초급당부원인 우리는 가나있었다. 지금은 김철남동무가 그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어주자고 하였다.

이 건강을 수 없이 쏟아내려왔었다.

이날 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류혜경동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제대군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마련하였다는 방 안과 부엌의 모든 물건들을 눈물을 머금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싶어보며...

부엌정동무는 그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끝없이 펼쳐놓았다. 명절때마다 초급당부원을 비롯한 일군들이 새간단 자식의 집을 찾아오는 부모뭍처럼 시로품과 생활필수품들을 한가득 들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야기, 아들이 위장염에 걸려 입원했을 때 자주 병원에 찾아와 의료일군들에게 외손자를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여 자기 초급당부원의 딸이 되었던 이야기...

류혜경동무는 축복할 것 은 수줍은 웃으며 이런 친혈육의 사랑을 받는 제대군관가족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었는가.

우리는 한 제대군관가족의 진정에 넉넉 목소리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현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지휘 받아내시는 우리 인민의 정성애가 얼마나 고결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정에 젖어있곤 하였다.

후에 안일이었지만 초급당일군들은 제대군관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해주었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업에 앞장섰다. 그들의 뒤를 관리국의 일군들도 모두가 따라나섰다. 그리하여 생활필수품과 가구, 부엌예간 등이 살림방과 부엌을 채우게 되었으며 창고에는 한해 동안 댕수 있는 구명탄이 딱 차게 되었다.

책임일군들이 액정텔레비전을 들고 찾아왔고 초급당부원 김일현동무와 강기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해주었으며 김일현, 김일영, 조영순동무를 비롯한 녀성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성의를 다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군관을 위하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집대문을 때었이 마두리곤 하였다.

남편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일일이 다 품을수는 없었다고 하였다.

관리국과 공장의 일군들은 김철남동무뿐 아니라 다른 제대군관들을 위하여도 전정을 쏘아부었다.

가족을 데려올수 있는 준비정형을 알아보고 제대군관들의 살림집을 돌아보러 초급당부원인 우리는 가나있었다. 지금은 김철남동무가 그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어주자고 하였다.

이 건강을 수 없이 쏟아내려왔었다.

이날 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류혜경동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제대군관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마련하였다는 방 안과 부엌의 모든 물건들을 눈물을 머금고 하나하나 만져보고 싶어보며...

부엌정동무는 그후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끝없이 펼쳐놓았다. 명절때마다 초급당부원을 비롯한 일군들이 새간단 자식의 집을 찾아오는 부모뭍처럼 시로품과 생활필수품들을 한가득 들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이야기, 아들이 위장염에 걸려 입원했을 때 자주 병원에 찾아와 의료일군들에게 외손자를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여 자기 초급당부원의 딸이 되었던 이야기...

류혜경동무는 축복할 것 은 수줍은 웃으며 이런 친혈육의 사랑을 받는 제대군관가족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만이었는가.

우리는 한 제대군관가족의 진정에 넉넉 목소리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현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지휘 받아내시는 우리 인민의 정성애가 얼마나 고결한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종 석

관계개선의지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가고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없는 관계개선을 추동해나갈수 없고 관계개선이 없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뒹잡자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좌익민족적뉴대와 협력을 있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

지난 8월 우리는 북남고위급간담회 협상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그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결과로 북남고위급간담회를 포함하여 북남사이의 초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일족축발의 위기속에서 마련된 북남합의를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감감상선 좋어지거나, 친척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북남통자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있는것은 우리의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관계개선의지와 용모적노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에 대하여서는 남조선 각계도 찬사를 이기지 않고있다.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당사자로서 용당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정반대로 행동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낸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합의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운동에 계속 광분하는것은 저들이 운운하는 《대화》타령의 기만적정세를 스스로 폭로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도발적인 전쟁소탕은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의 앞길을 가로놓은 일종의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쟁광들은 온 겨레의 의사와 법원에 역행하며 대화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북침전쟁불장난등을 매일같이 벌이고있다. 그들은 8월의 북남합의가 있는 직후 미국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2015 통합화력개발협약》이라는것을 사상 최대로 벌려놓음으로써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저들의 속심을 스스로 드러냈다. 《인권상륙작전》의 재현이나, 《북의 전략핵심심포지티브》를 위한 특수부대편성이나 하며 우리를 자극하고 《호국》, 《화랑》 등 각종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이며 대화의 문이 열릴수 없다고 막아놓는것들이었다. 최근 남조선전쟁광들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건》호를 끌어들이며 대규모적인 연합해상기동훈련을 벌이고 연평도사건 5년을 계기로 그 《연평도훈련》에 대해 떠들며 서해상에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에 열을 올렸으며 《추도행사》의 간판에 반공화국대결광대군도 요란히 빌려놓았다. 과연 이것이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자들의 행동인가.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당국회담》이나 취니 하면서 저들이 북남대화에 크게 관심하고있는듯이 생색을 내고있다. 하지만 《수뇌부대결능력회화》에 초점을 맞춘 《각각제 5015》를 들고나오고 북침전쟁마작각본인 《4사도계획》의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그들의 이중적자세만을 보여줄뿐이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도 북남대화분위기를 해치려는 악랄한 도발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의 산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은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열어나지해왔는가 하는것은 내외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북남당국대화를 때려면서 그에 배지되게 《북핵문제》의 시급성이나, 《북인권》이나 하며 외세와 반공화국핵소동, 《인권》모략책동에 계속 기수를 부리고있다. 며칠전에도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제》나, 《북의 핵능력고도화》나 하며 외세의 옷자락을 붙들고 반공화국핵소동을 청탁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의 운명을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대결에 계속 매여달라드니 이것을 다시금 신원한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침범하는 《북인권결의안》을 조작해낸것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체도를 더무니없이 걸고들며 《세계평화》를 실현하려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이 빛이날것은 북남관계의 파국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리하여도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과 관련하여 우리를 더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저들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였다.

보다싶이 8월의 북남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다.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 돌아앉아서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는 그들에게 진정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북남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시대의 부름이다. 북남합의의 이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지난 20일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안하였다. 이것은 우리민족끼리정전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의 실현은 우리민족끼리 정전이다. 남조선당국은 남조선집권자는 얼마전 북남대화문제와 관련하여 《북의 진정성》과 《실현의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미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말과 실천으로 다 보여주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당국회담》에 대해 떠들것이나 아니라 실현행동으로 대화와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북남대화양상을 버리지 않고 외세와 공모하여 반공화국압살의 길로 계속 질주한다면 대화와 합의 열어도 해결되지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책임적인 시기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말장난이나 하고 대결소동을 벌일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지금 온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구태의연한 태도에서부터 버리고 실천행동으로 합의행동을 다그쳐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옛꿈을 끝끝내 실현해보려는 헛된 망상

《평화국가》의 말을 깨닫지 못하면서 전쟁국가로 되려는 일본본동들의 행태가 날로 로복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사위대》가 15개 군사기지에서 34개의 미국산 《메트로트》요격미사일총합제를 배비하는 대규모사임을 완료하였다. 일본집권세력이 《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타격으로부터의 방위》를 구실로 내건것은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겠다는 저들의 책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엄중하것은 전쟁을 할수 없게 규제된 헌법 9조를 한사코 개악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그 선두에 일본집권자가 서있다. 그는 국회참의원에 가서는 《새로운 시대》를 운운하며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열리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중의원에서는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떠들었다. 이에 합세하여 도포에서는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고 헌법개정을 공공연히 요구해나갔다.

이 사실은 전쟁국가조작을 노린 일본우익집권세력의 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집권세력은 출판 《적극적평화주의》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일본《사위대》의 공격능력을 최대한 갖추기 위해 첨단무기들을 미국에서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저들의 책동을 가리우는 면사포처럼 써먹고있다. 일본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극악한 특정비밀보호법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에 뛰어들기 위한 《안전조치법》과 같은 술한 악법들을 조작해내면서 《적극적평화주의》를 광고판처럼 리용하고있다. 《메트로트》요격미사일총합제 배비의 완료와 헌법 9조의 개악시도도 역시 《적극적평화주의》의 그늘 밑에서 벌어지고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적극적평화주의》의 진적성에는 군국주의이며 제침투이다.

일본군국주의는 패망 후 미제의 비호두문위에

완전히 되살아났다. 일본군국주의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현 일본정부는 군국주의정부가 해도 파언이 아니다.

헌법을 개악하는 경우 반대하는 사태가 일어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만 놓고서도 현 일본정부가 이전의 우익정부를 풍자하는 매우 반공적이며 극단적인 정부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집권세력이 일본을 군국주의국가, 제침투국가로 전변시키려는 저들의 나쁜한 속심을 감추어보려고 《적극적평화주의》라는 간판을 내건것이다.

전쟁의 포기와 전투력 및 교전력의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를 개악하면 일본은 전쟁국가로서의 모양새를 세상에 벗어트리 드러내게 된다. 그렇기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제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거이하여 이루어보려는 군국주의판신자들의 파멸적인 야망은 헛된 망상이다. 일본《사위대》는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끌고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해역들과 지역들에 들어가 배치가 활발히 하고있다. 일제시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을 침공하던 때를 되풀이하는것이다.

하지만 일본집권세력은 그때문에 일본의 승운이 영원 끝질수 있는것을 특별히 알아야 한다. 용망이 극도에 이르렀을 분별을 잃게 되고 망상이 지나치면 운명을 망칠수 있다. 과거에 일본은 미친듯이 부풀어오르는 영토갈망욕망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강제에 의해 종래 패망의 쓴맛을 보았다. 지금 일본의 용망과 망상도 과거보다 더하여 더했지 못하지 않다.

일본집권세력은 한결같은 내성에도 무서운 함성처럼 일본의 앞에 놓여있지 않는것을 잘 살피며 버려야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빼루단체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배위원회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여 최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수 있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것을 세계 진보적세력들에 호소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는 우리의 핵을 걸고드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집권자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식과 대결분위기를 더욱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4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10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 기만 하면 우리의 《핵위협》을 걸고들며 반공화국핵소동을 구상하는 놀음을 벌리는것은 세상이다 아는 악습으로 굳어지지 오래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의 행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는 이번에도 20개국 및 지역수뇌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나 하는 국제회의들에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는 제질화된 본태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에서 《북의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느니, 《북이 핵포기하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반공화국핵소동을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대결정책과 미국의 북침책전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부질없는 행위에서 지나치지 않는다.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오늘도 미국은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으며 남조선호전분파는 이에 적극 편승하면서 북침책전정양상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다.

얼마전 남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에게 대한 핵선전작을 노린 《4사도계획》이라는것을 새로운 북침전쟁계획인 《각각제 5015》에 반영한다고 공

공연히 떠들어대고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부산앞바다에 끌어들여 도발적인 반공화국핵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단적실체에 불과하다.

현실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고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미국과 남조선호전분파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국제무대에 나가 《북핵포기》나, 《북핵위협》이나 하고 떠들며 조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저들의 비정치적행위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이미 평정한 국제사회는 남조선당국의 그러한 정세를 꿰뚫어본지 오래다. 남조선집권자가 국제회의의 성격이나 상대도 가리지 않고 동족부르며 모해하며 반공화국핵소동을 청탁하는 놀음을 벌린것은 우리에게 대한 세계적인 적대적의식의 집증적 발로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핵압살판관이 날로 기세를 부리는 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켜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지위적인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담보하는 우리의 핵을 걸고드는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존엄이고 국지인 자위적핵억제력이 미국의 적대정책과 핵전쟁위협이 존재하는 한 더욱 강화될것이며 그 어떤 흥정클로라도 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다 쟁전 대결분봉을 두드림수 채려질것은 국제사회의 평등과 수치함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합부로 통화를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지속되는 불순한 망동을 당장 중지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레로지원국》재지정은 조선에 대한 엄중한 도발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미국의 이런 국가레로행위들에 대하여 참아주아 하는가. 국제적으로 고립배제되어야 할 나라는 다음아닌 바로 미국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레로지원국》재지정문제를 들고나오는 미국의 보수세력들을 규탄하여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레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정대변인대담에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08년에 당시의 공화당정부 조선에 《레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한것은 결코 조선에 배운 선심이 아니라 자기 식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일인데 이제 와서 똑같은 보수세력이 《레로지원국》재지정을 요구하고있다.

레로문제와 아무런 연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은 조선을 또다시 《레로지원국》으로 비방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세습적거부감과 적대의 도로부러 출발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레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중지하라! 미국은 악의 레로제국이다.

계속 매어달릴수족 조선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레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것은 엄중한 도발로 될것이다. 진짜 레로지원국은 다음아닌 미국이다. 그것은 바로 미제가 가장 큰 국제테러분자, 대량학살자, 전쟁범죄자이기때문이다.

미국정부는 《레로지원국》명단이라는것은 자주적인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목적을 추구하는 범죄적인 문건으로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레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조선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중지하라! 미국은 악의 레로제국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정책에

로씨야에서 색정물들 류포시킨 미국인범죄자 체포

2013년에 로씨야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비법적으로 체포

로씨야에서 색정물들 류포시킨 미국인범죄자 체포

2013년에 로씨야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비법적으로 체포

로씨야에서 색정물들 류포시킨 미국인범죄자 체포

2013년에 로씨야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비법적으로 체포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란압만행

이스라엘군이 최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란압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6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부근에서 한 로인 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었다. 또한 이날 이 이스라엘군은 시에서 금요일을 마치고 나오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실탄하고 구르탄, 최루가스를 마구 쏘아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 13일 요르단강서안지역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란압만행

이스라엘군이 최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란압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6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부근에서 한 로인 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었다. 또한 이날 이 이스라엘군은 시에서 금요일을 마치고 나오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실탄하고 구르탄, 최루가스를 마구 쏘아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 13일 요르단강서안지역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란압만행

이스라엘군이 최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란압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6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부근에서 한 로인 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었다. 또한 이날 이 이스라엘군은 시에서 금요일을 마치고 나오는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실탄하고 구르탄, 최루가스를 마구 쏘아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 13일 요르단강서안지역

기후변화후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후과로 국민수가 급격히 늘어났것으로 예견되고있다. 8월에 발표된 한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나라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서의 사태발전은 이슬람교혁명을 파괴하려는 저들의 책동이 실체를 면치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국가회의의 의장 페르게이 나리슈킨도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그 지역나라들에서 무질서와 복잡한 사회정치적분쟁이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내정간섭에 기를 쓰고 달려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해당 나라의 영상을 꺾어내려고 그 나라의 내부를 와해시키며 정치, 군사, 경제적침략과 압박의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강권과 전쟁, 내정간섭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며 하나의 침략수법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지배주의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림수록 더욱 욕심있게 매여달림수록 그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더 큰 항거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무장분쟁으로 인한 피해

남부수단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의 후과로 많은 피해층이 보고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무장분쟁으로 현재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90만명의 수천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이 나라 인구 3분의 2가 긴급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

피난민 위기

오스트리아인들속에서 피난민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6월 이 나라의 한 조사단체가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응답자의 60%가 유럽을 휩쓸고있는 피난민위기가 더욱 심화되고있는데 대해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다.

리 경 수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로씨야외무장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17일 한 텔레비전방송과의 회견에서 수리아에서 미국이 추후하는 목적에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주도의 《안테로련합》이 국제테러조직인 《이슬람교국가》와 기타 테러분자들과 싸우기 위해 무어었다고는 하지만 1년 넘었던 기간 테러분자들의 진지함을 타격을 가한 분석자로써 보면 그들의 타격이 선택적으로 가해했다는 결론을 내릴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였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수리아군을 궁지에 빠뜨릴수 있는 테러조직의 부대들을 타격하지 않았으며 테러분자들이 수리아내통령의 맥을 뿌리게 바라고있다 그는 깨달았다.

테러분자들에 대한 미군정찰기의 침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이 전자정찰능력을 갖춘 비행기를 베네수엘라영공에 들어있어 정찰행위를 감행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그는 이를 국제법에 대한 관공한 위반행위로 란인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국지적인 거가 다다음에 따라 지역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안가까지에 각종 함선들을 들어일고있는데 대해 깨달았다.

그는 전체 인민이 불안정을 조성하거나 또는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속되는 긴급조치로 농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있는데 대해 항의하고 그러한 조치들을 당장 철회치우것을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가스총을 쏘아대면서 탄압소동에 광분하였다.

일본의 오키나와현에서 18일 현내에서의 미군기지에서성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현의 란트 슈와브미군기지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헤노코에》는 군사기지가 필요없다. 《헤노코에는 나가라》 등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현내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도 부응하고 이설계획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7-51186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행등록번호 제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편집위원회